

BNK금융, 해양수도권·중앙포 개척 ‘투트랙’ 승부

동남권 조선·해운·플랜트 지원
부울경 특화 전략으로 동반성장
외국인 근로자 맞춤 금융 확대
카자흐스탄 진출로 신시장 공략

BNK금융이 정부의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목표에 발맞춰 지역 핵심산업에 투자를 늘린다. 지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금융’ 공급 확대 및 중앙아시아 금융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인구 감소 및 산업 유출로 지방금융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만큼 지역 동반성장과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성장 한계를 극복한다는 목표다.

◆ ‘해양수도권’ 전략 동행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정부의 동남권 ‘해양수도권’ 전략 발표 이후 조선·해운·해상플랜트 등 지역 핵심산업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지난 달에는 1조원 규모의 ‘BNK힘찬도약펀드’를 조성해 지역 내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이달 들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 해양기업 전용상품 개발에도 돌입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을 시작으로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해운에 특화된 부산, 조선·해상플랜트에 특화된 울산·경남을



BNK부산은행 외국인서포터즈가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연결한다는 목표다

BNK금융은 지방금융 특유의 중소기업 대출 전문성, 지역 특화 전문인력 등을 앞세워 정부의 해양수도권 목표에 발맞춘 금융시장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7월 투자그룹을 해양·IB그룹으로 재편해 해양산업 비중을 확대했고, 사령탑인 BNK금융지주에서도 ‘해양도시전략팀’을 신설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이전 대응 TF’도 출범했다.

◆ 지역 내 ‘외국인 금융’ 확대

BNK금융은 지역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특화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했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 수요도 늘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부울경 지역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한 외국인 수는 17만1000명이다. 전국 장기 체류 외국인의 약 9.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년 동월의 14만8000명과 비교해도 15.4% 늘어 역대 최다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 15일 김해금융센터·사상금융센터 등 외국인 고객 비중이 큰 13개 영업점에 통역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서포터즈’를 배치했다. 각 서포터즈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힌디어, 베트남어, 마인어 등

각 영업점별 수요에 따라 다국어어가 가능한 유학생들로 구성됐다. 경남은행도 거제와 김해, 울산 온산공단 등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큰 공단에서 외국인·다문화 직원을 배치한 외국인 고객 전용 창구를 운영 중이다.

◆ ‘블루오션’ 중앙아시아 진출

BNK금융은 현지 법인 출자를 통한 중앙아시아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 아시아 금융 시장이 높은 성장성으로 주목받는 만큼,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이 미진한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에도 전한 것.

앞서 BNK금융은 지난 8월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 ‘BNK 카자흐스탄 은행’을 출범했다. 국내 금융사가 카자흐스탄에 출점한 것은 신한금융에 이어 두 번째로, 경영 목표는 ‘디지털 기반의 중소기업 특화은행’이다.

BNK금융 계열사인 BNK캐피탈도 국내 민간금융사로는 유일하게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서 동시 영업 중이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세 국가의 인구는 도합 6500만명으로, 경제성장률도 연 4~6%에 달해 성장 잠재력이 높다. BNK금융은 소액금융사로 영업중인 현지 법인의 점진적 인가를 추진, 각국을 연결하는 금융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신한 에어원 카드 플러스 혜택 이벤트 관련 포스터. /신한카드

신한카드

Air One 플러스 혜택 연말까지 이벤트 진행

신한카드가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특화 카드인 ‘신한카드 Air One(에어원)’ 플러스 혜택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먼저, 오는 12월 31일까지 해외에서 에어원 카드 이용 고객에게 일시불 이용 금액의 1%를 마이신한포인트로 무제한 적립해 준다. 해외 이용 시 1000원당 최대 2마일리지 적립되는 기존 카드 혜택과 별도로 제공되며, 혜택은 전월 이용 실적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다.

공항 라운지 혜택도 강화했다. 기존 인천공항 마티나라운지 연 2회 본인 무료 입장서비스에 동반자 무료 이용 서비스를 연 2회 추가로 제공한다. 에어원 카드 아멕스(AMEX) 브랜드로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 고객이 혜택 대상이다.

한편, 에어원 카드는 신한카드의 대표적인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카드로 국내 카드 이용 시 1000원당 1마일리지를, 국내 항공·면세점등 및 해외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1000원당 2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현대카드

라이프스타일 특화 알파벳카드 5종 출시

현대카드는 16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특화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알파벳카드 5종을 출시했다.

알파벳카드는 알파벳이니셜로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한 카드다. ▲다 이닝(Dining)을 뜻하는 현대카드D ▲홈(Home)을 뜻하는 현대카드H ▲오일(Oil)을 뜻하는 현대카드O ▲쇼핑(Shopping)을 뜻하는 현대카드S ▲트래블(Travel)을 뜻하는 현대카드T로 구성됐다. 5종 모두 할인카드로,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청구할인 방식이 적용된다. 외식, 병원·교육, 주유, 쇼핑, 여행 등 5가지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10%의 높은 할인율과 더불어 연간 최대 60만원의 할인 한도를 제공한다. 실적 조건과 한도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카드D는 일반음식점 및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H는 교육과 병원 업종에서 10%, 현대카드O는 모든 주유소에서 10% 할인이 가능하다.

/안재선 기자

‘보릿고개’ 넘는 카드사… 가전구독 카드로 활로 찾는다

업계, 가전업계와 PLCC 상품 확대
국민카드, 삼성 AI구독카드 선배
신한카드, LG 가전 구독고객 할인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카드사들이 가전업계와 상업자표신용카드(PLCC)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가전기업들이 가전구독서비스를 확대하고 나서 자 카드사 역시 관련 제휴 카드를 출시, 수익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가전업계와 손잡고, 가전 구독 모델 이용 고객을 겨냥한 PLCC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가전 기업이 구독 모델을 확대하는 흐름에 따른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업체는 침체된 소비 시장을 뚫기 위해 구독 혜택을 강화하며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다. 가전구독 모델은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직접 구매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의 형태로 정기 구독료를 지급해 사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월 단위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설치 및 관리, 애프터서비스(AS)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KB국민카드는 최근 ‘삼성 AI구독 KB국민카드’를 선보였다. 삼성전자의 구독형 가전제품을 자동납부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준다. 전월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 1만원, 70만원 이상 1만2000원, 100만원 이상 일 경우 1만4000원이 각각 할인된다.

카드 상품 이용 고객을 확대하기 위해 휴면고객을 위한 혜택도 강화한다. 6개월간 KB국민카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이 카드를 발급받아 삼성전자 구독

서비스를 자동납부 결제하면 36개월 동안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신한카드 역시 지난 7월 LG전자와 손잡고 ‘LG전자 The 구독케어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스타일러·스텐바이미 등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을 구독해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월 이용 실적에 맞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 금액이 30만~70만원 사이인 경우 1만3000원, 70만~130만원 미만인 경우 1만6000원, 130만원 이상 이용 고객에게 2만원의 할인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한 달 기준 LG전자 구독 서비스를 7만원 이상의 가격대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1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코웨이 신한카드’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코웨이 정수기, 공기

청정기 등을 빌려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차등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전월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인 경우 1만3000원, 7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1만7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50만원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최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휴면고객이 카드를 발급받고 코웨이 렌탈상품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6000원의 추가 할인 혜택도 6개월간 제공한다.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신한카드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대우건설 컨소, GTX-B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 체결

3조 870억 규모 PF 약정식 체결
노선 추진 위한 핵심적 재무 마련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5일 수도권광역행철도 GTX-B 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주선기관인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교보생명보험을 비롯한 자산운용사 등과 3조 87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금융(PF) 약정식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수도권 교통난 해

소와 균형 발전을 견인할 GTX-B 노선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재무적 기반이 마련됐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한 재무출자자 및 대주단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능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표 건설출자자로 약정식에 참석한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이번 약정은 GTX-B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본 사업의

준공을 넘어 40년 동안의 운영기간까지 순항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대우건설은 선행사업인 GTX-A의 시공경험과 다수의 메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GTX-B의 시공 전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관리와 최고의 시공품질로 적기 준공하겠다”고 덧붙였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역과 남양주 마석까지 82.8km 구간을

연결한다. 개통시 수도권 동서축 광역교통망을 대폭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2년 12월에 신한은행과 함께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지난 8월 4일 착공에 들어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전반적인 공사 원가 상승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국가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 혼잡 완화 및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